夫婦間 意思疎通類型과 自尊感및 人口社會學的 變因間의 相關性에 관한 硏究

– 서울市를 中心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Marrical Communication Types and Demographic Socialogical Variables

-on Some of the married Seoulites-

동국대학교 대학원생 徐 修 京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李 貞 德

Dept. of Home Economics Dongguk Univ.

Graduate School Student : Seo, Soo-Kyung

Prof. : Lee, Chung-Duck

〈目 次〉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marital communication types and self-esteem demographic-sociological variables to eliminate the methodological contradiction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imed as follows;

(1) correlation between marital communication types and all the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self-esteem, sex, age, academic history, mate selection type, family type, duration of marriage, religion, etc. and marital communication types.

(2) discriminating powers of marital communication types by way of the variables mentioned above.

In this study questionaire was used on 392 married Seoulites, which consists of two scales and 9 items.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es, the following two methods were used;

(1) LOGIT program to the correlation between norminal scale and/or interval scale.

(2) discriminating analysis of marital communication types by way of the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Only 4 variables, such as self-esteem, sex, duration of marriage and academic history, correlate with marital communication types in the level P 〈 0.05

(2) According to the discriminating analysis of the variables mentioned above, marital communication types cannot be predicted as the predictive power is only 32.2%.

(3) Correlation coefficent of authoritic communication type is higher males than females and higher low degree group of self-esteem than high degree group.

(4) In the some communication types, direction of correlation coefficent is different in the some variables.

I. 序 論

철학자인 Buver는 "인간에게 있어서 존재한다"는 말은 "자신 이외의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전제한 것이며, 또한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고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對話"라 주장하고 있다. 본래적인 人間 存在로서의 삶은 「나-너」의 관계를 통한 對話的인 생활로써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나-너」의 관계는 곧 대화의 관계인 것이다(박지영, 1986:15~16).

또한 Galvin은 삶에 있어서의 대화에 대한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공유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한다. 관계의 유대와 친밀감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새삼 他者를 발견하거나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共有하면서 점차적으로 발달한다" (Kathleen M. Galvin & Bernard J. Brommel, 1986: 81)는 것이다.

대화관계로서의 「나-너」의 의미는 社會生活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간의 개별적 존엄성 및 평등성이 보편화된 현대에 이르러 부부간의 원만한 대화는 더욱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고 하겠다.

부부관계는 가정을 이루는 1차적인 관계이며 각자의 自我를 가지고 이에 따라 서로를 이해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 가족제도에서는 부부가 애정을 바탕으로 동등한 立場에서 대화를 통하여 부부의 제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민주적 가정관리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부부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쌍방적인 상호관계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겠다(조혜정, 1987:178).

또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의 목표를 설정하고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제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며,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험과 관심을 서로 나누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부부는 더욱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부부가 서로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 불만스러운 결혼을 지속하거나 이혼으로써 가족을 해체시키게 됨은 부부 자신의 정신건강과 自我존중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전한 人性發達, 社會化, 나아가 자녀의 앞으로의 결혼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문제아, 청소년 비행, 이혼률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조성욱, 1987:178).

이처럼 부부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위치는 부부와 자녀 그리고 가정,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칠정도로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 혹은 적응성, 부부의 역할, 부부간 갈등 등에 국한되고 있을 뿐 부부간 의사소통에 관련된 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 연구된 것들도 대부분 결혼만족이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變因으로 다루거나 의사소통과 제변인간의 관계분석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연구상의 부진함보다 학문적으로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Haukins(1977, 1980), Virginia Satir(1972), 이창숙(1988) 등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같이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변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

구의 대부분이 의사소통을 一元的으로 다루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즉, 부부간 의사소통이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질 경우, 동일한 독립변인이라 하더라도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상관정도 및 방향에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형을 무시한 一元的 分析〈권정임(1981), 정용제(1985), 박민숙(1985), 송말희(1986)〉은 의사소통의 유형과 독립변인간의 상관성에 대한 개별적 특성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같은 기존연구의 방법론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부부간 의사소통과 상관성이 있는 변인으로 지적된 제 변인, 즉 성(sex)·자존감(self-esteem)·연령·학력·결혼형태·가족형태·결혼기간·종교 등을 중심으로 유형별 각 독립변인들의 상관도 차이 및 이들을 가지고 의사소통유형을 얼마나 정확히 판별해 낼 수 있는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연구고찰

부부간 의사소통은 일정한 의사소통양식속에서 대화의 주제나 내용만 달리하여 이루어진다는 Jo Ann Larsen의 지적이나(이창숙, 1988:11 재인용), 원효종(1983)의 부부간 의사소통양식에 따라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의식이 다르다는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사소통양식은 부부간 의사소통의 원활성을 결정하는 主要變因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부부간 의사소통은 一元的 양식인가, 아니면 多元的 양식인가? 초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一元的 樣式의 단일차원 변인으로 파악하여 종속변인나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Haukins(1977, 1980)나 V. Satir(1972) 등에 따르면,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부간 의사소통에 관한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분류기준에 따라 달리 분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① 외국학자들의 것으로 "언어화의 정도와 정서적 감정표출의 정도"에 따른 Haukins의 분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제변인"을 기준으로 한 Virginia Satir의 분류 등이 있으며 ② 한국학자의 것으로는 송성자와 이창숙의 분류를 들 수 있겠다. 이중 Haukins와 이창숙의 분류내용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aukins 등(1977, 1980)은 언어화의 정도와 정서적 감정표출의 정도에 따라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양식을 차단형·억제형·분석형·친숙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차단형(conventional style) : 문제를 숨기거나 피하여 그에 대한 명백한 언어화를 하지 않으며 감정의 표출이 낮아서 정서적 투입의 상태를 거의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가벼운 농담이나 날씨 등에 관한 이야기로써 화자 자신의 개인적 문제와는 상관없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할때의 의사소통 유형이다.

나. 억제형(controlling style) : 상호적으로 의미를 탐색하는 것에 대하여 폐쇄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문제나 內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언어화를 금한다. 암시적으로 감정의 상태가 높거나 부정적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지만 객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다. 분석형(speculative style) :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하고 자신과 다른 관점을 존중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분석적이며, 감정적으로 거의 몰입하지 않아 낮은 감정표출형이다.

라. 친숙형(contactful style) : 자신이나 他人의 내적 사실과 경험한 바에 대하여 명백히 언어화하고자 하며, 정서적으로도 강한 몰입을 나타낸다.

한편, 이창숙(1988)은 한국(도시) 남편과 부인들의 의사소통 유형을, 남편은 권위·친숙·성식·분석·타인지향형으로, 부인은 권위·성실·타인지향·희생·분석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권위지향형 : 권위적인 성격은 관례적, 냉소적, 파괴적, 공격적, 세력중심적 행위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격은 열등감, 무력감, 개인의 무의미 때문에 권위적 행동을 취한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거나, 상대방의 변명이

나 설명을 듣지 않으려 하거나 주변사람을 지배하려 하거나 화를 잘내고 큰 소리로 말하며 잘 싸우려는 행동양식 등이다.

나. 친숙형 : 정서적으로 풍부한 상태를 보이며 자신의 내적 사실과 경험을 명백하게 개방적으로 언어를 통해 표출하며 정서적으로 강한 투입을 보인다. 개방적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내적, 외적인 경험이나 사실을 인정할때 자신의 관점을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려 하는 성향이며 또한 높은 감정표출이란 어떠한 사실에 대해 정서적으로 강하게 몰입해 있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성실형 :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집을 중요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가족구조내에서 서열의식 등 전통적 가족구조에 대한 방어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고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은 이 유형의 대표적인 것이다. 형식적이며 체면을 중시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라. 분석형 : 지나칠 정도로 합리적인 말만 하며 태도는 조용하고 차며 항상 올바르다. 감정을 내보이는 일이 없으며 기계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나는 상처입기 쉬운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한다.

마. 타인지향형 : 타인의 의견을 항상 조심하고 그것에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신경을 쓰며 특히 무슨 주장을 내세울 것인가를 신중히 생각한다.

바. 희생형 : 가문을 중요시하며 남존여비사상, 서열의식, 집안의 화목 등을 위한 개인의 희생, 전통적인 가치의식 등은 지위가 낮은 사람, 특히 여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자에 대한 의존과 희생은 약자, 특히 한국여성의 커뮤니케이션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이 잘못되면 자기책임으로 생각하거나 자기를 숨기려 하거나, 상대방의 눈치를 보거나, 무조건 동의하거나,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거나 하는 행동양식을 말하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한국여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특징이다.

2. 부부간 의사소통과 제변인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고찰

부부간 의사소통유형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Terman은 성격과 태도라는 變因을 들고 있다. 그는 결혼적응과 성격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불행한 결혼이 모두 성격적 요인에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수용하려면 정확한 상황판단과 함께 상대방의 성격·태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태도 등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나, 불행한 결혼의 경우 성격적 요인에 대한 무시에서 파생된 의사소통의 장애현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정순, 1982:16 재인용).

한편, Jo Ann Larsen(1982)은 부부간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은 언어형태 및 제스츄어와 연결되어 그 양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서로 이야기하는 主題나 내용만 변할뿐 일정하게 유형화된 커뮤니케이션양식은 변하지 않는다고 부부간 의사소통유형의 不變性을 지적하고 있다(이창숙, 1988:11 재인용).

또한 Miller, Corrales, Wackman 등은 그들의 연구보고서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체계에 있어서 말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균등하고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수록, 또한 서로를 존중할수록 부부관계는 성장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Boyd와 Roach는 부부간의 개방된 커뮤니케이션은 결혼생활의 質에 영향을 미치며, 결혼생활 內面의 신뢰를 확대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앞글 10).

한편, Haukins 등은 표현적이며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집단은 교육정도가 높은 집단이며, 폐쇄적인 집단은 적게 커뮤니케이션하고(Haukins et al., 1977:479~490), 남편은 폐쇄적이며 표현이 적고 부인은 개방적이며 표현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Haukins et. al., 1980:585~592).

Klemer는 남자들이 좀더 실제적이며 사실적 대화

를 하며, 여자들은 감정적 대화를 주로 하고 또한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되는 주요 요소는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 욕구의 결여, 안정성의 결여 및 선택의 결여'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상호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듣는 쪽이 전달자의 전달언어 이외에도 언어가 주는 의미와 감정을 받아 들일 능력이 있어야 하며, 수신자는 자기감정을 전달하려는 욕구와 남의 감정을 수용하거나 이해하려는 욕구가 있어야 하고,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시간, 장소, 대상의 적절한 선택이 있어야 하며, 또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Richerd H. Klemer, 1975:249~252).

Michel은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에 더욱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결론짓고 있으며, Blood와 Wolf는 학력이 높을수록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개발되며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용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Deacon-Firebaugh도 학력은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창숙, 앞의 논문 10 재인용).

V. Satir는 의사소통의 곤란이 내적, 심리적으로는 개인의 자아개념, 즉 그 사람의 자부심과 관련되어 있고, 환경적으로는 가족의 규칙 및 체계, 사회와의 연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부심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붙이는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부심이 높은 사람은 통합성, 책임성, 동정, 사랑,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의 차이성을 인정하나 자부심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많은 걱정과 불안을 경험하고 배우자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Satir는 자존감을 부부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기초로 파악하고 있다 하겠다(V. Satir, 1972:60~73).

한편,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부부간 의사소통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정용제(1985)는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상관연구'에서 부부간 의사소통의 정도는 사회경제적 지위 및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송말희(1986)는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연구에서 연령·학력·사회경제적 지위·결혼지속연수·자녀수라는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원효종(1983)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양식과 의사소통불안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Haukins 등이 분류한 의사소통 양식별로 불안의식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부간에는 감정노출이 많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감정을 억제하는 폐쇄적 의사소통양식은 적다고 보고하면서, 의사소통양식에 성별·교육정도·직업·결혼기간은 영향을 미치지만 연령과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부부간 의사소통과 제변인들간의 상관성을 연구한 위의 논문들 이외에 부부간 의사소통을 다룬 최근의 논문들로는 권정임(부부간의 대화를 통한 결혼생활의 만족도:1981), 조혜정(부부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실증적 연구:1983), 조은경(기능적인 가족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1984, 가족커뮤니케이션과 권력에 관한 기능적 이론의 접근:1987), 김정현(부부치료에 있어서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적 접근:1985), 김정현(부부치료에 있어서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적 접근:1985), 김정옥(가정폭력에 관한 연구:1988) 등의 연구가 있다.

위에서 살펴 본 제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부부간 의사소통은;

첫째, 부부간 의사소통은 그 주제나 내용만 변할 뿐 유형화된 커뮤니케이션양식은 변하지 않으며

둘째, 부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은,

① 학력·연령·결혼지속연수·자녀수·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② **自我尊重感**·성격·태도라는 심리학적 **變因**들이며

셋째, 의사소통양식과 상관성이 있는 **變因**은 성(sex)·학력·직업·결혼기간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3.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연구에서 부부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제변인들을 의사소

통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의 상관성을 고찰할 경우 그 상관성은 어떻게 변하는가와 제변인들을 가지고 의사소통유형을 얼마나 판별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Ⅰ. 자아존중감 및 인구사회학적 제변인(性·연령·학력·종교·가족형태·결혼형태·결혼생활기간)은 부부간 의사소통유형과 상관이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Ⅱ. 각각의 독립변인을 가지고 의사소통유형을 어느정도 판별할 수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위해 연구문제 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Ⅰ. 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性·연령·학력·종교·가족형태 결혼형태·결혼생활기간間에는 각각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Ⅲ. 研究方法

1. 연구대상자 표집 및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로 제한했으며, 표집은 2단계 無選표집방법(Two step random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1단계로 22개 區中 6個區를 무선적으로 표집하고, 다시 각 區에서 무선적 방법에 의해 3個 洞씩 무선표집한 다음 기준집을 기준으로 두집 건너 한 집씩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질문지 작성 및 측정척도

질문지는 부부간 의사소통유형, 자존감(self-esteem) 및 제 독립변인, 즉 성(sex)·연령·학력·가족형태·종교·결혼형태·결혼지속기간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부간 의사소통유형은 Haukins, Satir, 송성자, 이창숙 등의 것이 있으나 여기서는 이창숙의 요인분석 결과를 주로 참고하였다. 이창숙(1988)은 그의 요인분석을 통한 한국(도시) 남편과 부인의 의사소통유형연구에서 권위지향형·친숙형·성실형·분석형·타인지향형·희생형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타인지향형과 희생형은 아이겐値(eigen value)가 1.0이하로 큰 의미가 없어 6가지의 유형중 이 두가지 유형은 배제하였다.

또한, 권위·친숙·성실 등 유형별 명칭에서 오는 편견을 통제하기 위해 평가자들의 평가문항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 수 없게 했으며, 평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평가자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유형의 구체적 내용(예: 권위지향형→이 부분은 명기치 않음 : ✶내 자신이 피곤할 때는 배우자의 이야기를 못들은 척 한다. ✶나의 고집을 강하게 내세워 이야기하는 편이다. ✶항상 내 기분대로 급히 이야기 해 버리는 편이다. ✶ 배우자에게 대체로 충고하는 이야기를 잘한다. ✶ 배우자와 이야기도중 의견차이가 생겼을 때에는 그냥 말을 뚝 끊어 버린다)들은 각 유형마다 5가지씩 제시했고 질문지 작성시 부부가 함께 의논하지 말도록 했다.

한편 자아존중감의 측정은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측정의 타당성을 대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척도중의 하나인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한 배제현(1984)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도의 Group化는 정상분포곡선을 3그룹化할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상위 ¼을 자아존중도가 높은 집단으로, 중간 ½을 중간 집단으로, 하위 ¼을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Rosenberg의 척도는 개개의 기능, 행동 또는 구체적인 특징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차원으로부터 자기자신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10개의 문항중에서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를 질문하여 극히 부정적인 응답에서 긍정적인 응답까지의 7점, Likert Scale로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3점, '보

통이다'에 4점, '그런 편이다'에 5점, '그렇다'에 6점, '매우 그렇다'에 7점을 주었고 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점수를 주어 합한 총점수로 측정하였다(의사소통유형측정과 자아존중감 측정 Scale의 견본은 부록 참조).

이외의 인구사회학적 독립변인들은 사회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기준을 따랐다.

3.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방법으로는 질문지법을 사용했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수정한 후 본조사를 실시했다. 예비조사는 1989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4명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본조사는 1989년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중 회수된 질문지는 412부였으며 자료기입이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이용된 질문지는 남자 201부, 여자 191부, 총계 392부였다.

최종자료분석에 이용된 피조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피조사자의 인구사회학적 제변인의 사례수 분포는, 성별 · 자존감 · 결혼형태 등은 안정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은 53세이상, 학력은 중졸이하, 가족형태는 부부가족형태, 종교는 천주교, 결혼기간은 10~15년, 15~20년의 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사례수가 적으나 변인중 최저사례인 연령의 53세이상이 38名으로 상관도분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4. 자료분석

종속변인인 의사소통유형이 명명척도이기 때문에 〈명명척도〉와 〈명명척도 및 등간척도〉 간의 상관도를 알아 볼 수 있는 LOGIT(Loglinear Analysis)프로그램을 사용, 퍼스널 컴퓨터로 통계처리 하였다.

Ⅳ. 分析結果

1. 가설 I의 검증

가설 I의 연구문제는 의사소통 유형과 결혼형태, 가족형태, 종교, 자존감, 성별 등 제 변인간에 상관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들간에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을 하면서도 최근까지 이들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지 못했던 것은 우

〈표 1〉 피조사자의 자존도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변인 / 구분	성별(N=392)		연 령 별(N=392)				학 력 별(N=390)		
	남	여	32세이하	33~40세	41~52세	53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사례수	201	191	107	142	105	38	49	109	232
백분율(%)	51.3	48.7	27.3	36.2	26.8	9.7	12.6	27.6	59.5

	가족형태(N=391)			종 교(N=380)				결혼형태(N=386)		
	부부	부부+자녀	확대가족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없음	중매	연애	절충
사례수	55	240	96	129	44	78	129	135	175	79
백분율(%)	14.1	61.4	24.6	33.9	11.6	20.5	33.9	35.0	45.3	20.5

	결 혼 지 속 기 간(N=392)					자 아 존 중 도(N=392)		
	5년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1년이상	G1(하1/4)	G2(중1/2)	G3(하1/4)
사례수	119	106	45	39	83	97	190	105
백분율(%)	30.4	27.0	11.5	9.9	21.2	24.7	48.5	26.8

리나라에 소개되어있는 SPSS 프로그램으로는 명명척도간의 다차원 관계를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새로 개발된 LOGIT Program으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과 제독립변인간의 상관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변인별 상관성

1) 성(Sex)

남녀라는 성(sex)과 의사소통 유형간에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의사소통 유형과 성 및 연령간의 적합도를 이들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고 보고 분석한 결과 L^2=42.516, df=21, p=0.004였는데, 연령을 통제한 후 성(sex)만 유의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 다시 L^2를 산출해 본 결과 L^2=42.516에서 33.800로 8.717만큼 적합도가 높아졌다.

이와같은 적합도의 증가가 자유도의 개선(df=3)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적합도가 유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양자간 차이검증의 결과 L^2=8.717, df=3으로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sex)은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과 연령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의사소통 유형과 성, 연령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고 가정하고 산출된 적합도는 L^2=42.516이었으나 성을 통제하고 연령만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결과 L^2=32.382로 10.134가 개선되었으나 이러한 개선이 자유도의 변화(df=21에서 12로)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적합도가 유의한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양자간 차이검증 결과를 보았더니 L^2=10.134, df=9로 p<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 유형과 연령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자아존중도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존도간의 상관성을 알

〈표 2〉 성별의 적합도 산출표

의사소통 유형과 성, 연령간에 상관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Likelihood chi square=42.516 df=21 P=0.004 pearson chi square=42.489 df=21 P=0.005
의사소통 유형과 연령을 통제한 후 성만 상관성이 있다고 가정할 때	Likelihood chi square=33.800 df=21 P=0.013 pearson chi square=33.294 df=18 P=0.015
차 이 검 증	L^2=8.717 df=3 P<0.05

〈표 3〉 연령의 적합도 산출표

의사소통 유형과 성, 연령간에 상관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Likelihood chi square=42.516 df=21 P=0.004 pearson chi square=41.489 df=21 P=0.005
의사소통 유형과 성을 통제한후 연령만이 상관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Likelihood chi square=32.382 df=12 P=0.001 pearson chi square=31.444 df=12 P=0.002
차 이 검 증	L2=10.134 df=9 P>0.05

아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성과 자존도는 의사소통 유형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고 보고 적합도를 구해 본 결과 L^2=48.590이었으나 성을 통제하고 자존도만이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적합도를 산출해 본 결과 L^2=20.758로 27.832가 개선되었다. 이러한 개선이 자유도의 변화(df=15에서 9로)에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 적합도가 유의한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양자간의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본 결과 L^2=27.832, df=6으로 p<0.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도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4) 학력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과 학력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성과 학력은 의사소통 유형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고 보고 적합도를 구해 본 결과 L^2=37.883이었으나 성을 통제하고 학력만이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적합도를 산출해 본 결과 L^2=14.743이나 개선되었다. 이러한 개선이 자유도의 변화(df=15에서 9로)에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 적합도가 유의한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양자간의 차이검증 결과 L^2=14.743, df=6으로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 유형과 학력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5) 가족형태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형태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성과 가족형태는 의사소통 유형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고 보고 적합도를 구해 본 결과 L^2=18.523이었으나 성을 통제하고 가족형태만이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 2차로 적합도를 산출해 본 결과 L^2=11.120으로 7.403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개선이 자유도의 변화(df=15에서 9로)에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 적합도가 유의한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나타내어 주는 양자간의 차이검증 결과에서 L^2=7.462, df=9로 p<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져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

〈표 4〉 자아 존중도의 적합도 산출표

의사소통 유형과 성, 자존도간에 상관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Likelihood chi square=48.590 df=15 P=0.000 pearson chi square=51.421 df=15 p=0.000
의사소통 유형과 성을 통제한후 자존도만이 상관성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Likelihood chi square=20.758 df=9 P=0.014 pearson chi square=20.324 df=9 P=0.016
차 이 검 증	L^2=27.832 df=6 P<0.05

〈표 5〉 학력의 적합도 산출표

의사소통 유형과 성, 학력간에 상관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Likelihood chi square=37.883 df=15 P=0.001 pearson chi square=37.940 df=15 P=0.001
의사소통 유형과 성을 통제한 후 학력만이 상관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Likelihood chi square=23.140 df=9 P=0.006 pearson chi square=21.482 df=9 P=0.011
차 이 검 증	L^2=14.743 df=6 P<0.05

〈표 6〉 가족형태의 적합도 산출표

의사소통유형과 성, 가족형태간에 상관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Likelihood chi square=18.523 df=15 P=0.236 pearson chi square=18.807 df=15 P=0.223
의사소통유형과 성을 통제한 후 가족형태만이 상관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Likelihood chi square=11.120 df=9 P=0.268 pearson chi square=10.909 df=9 P=0.282
차 이 검 증	L^2=7.403 df=9 P>0.05

〈표 7〉 종교의 적합도 산출표

의사소통 유형과 성, 종교간에 상관성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Likelihood chi square=22.060 df=21 P=0.393 pearson chi square=15.325 df=21 P=0.382
의사소통과 성을 통재한 후 종교만이 상관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Likelihood chi square=15.325 df=12 P=0.224 pearson chi square=14.909 df=12 P=0.246
차 이 검 증	L^2=6.735 df=12 P>0.05

형태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종교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과 종교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성과 종교는 의사소통 유형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고 보고 적합도를 구한 결과 L^2=22.060이었으나 성을 통제하고 종교만이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 2차로 적합도를 산출한 결과 L^2=15.325로 6.735가 개선되었다. 이러한 개선이 자유도 변화(df=21에서 12로)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적합도가 유의한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나타내어 주는 양자간의 차이검증 결과에서 L^2=6.735, df=12로 p<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 유형과 종교간에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7) 결혼형태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과 결혼형태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성과 결혼형태는 의사소통 유형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고 보고 적합도를 구해 본 결과 L^2=27.266이었으나 성을 통제하고 결혼형태만이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 2차로 적합도를 산출해 본 결과 L^2=19.804로 7.462나 개선되었다. 이러한 개선이 자유도의 변화(df=15에서 9로)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적합도가 유의한 것에서 기인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양자간 차이검증결과를 살펴보았더니 L^2=7.462, df=9로 p<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 유형과 결혼형태간에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8) 결혼기간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과 결혼기간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성과 결혼기간은 의사소통 유형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고 보고 적합도를 산출해 본 결과 L^2=46.990이었으나 성을 통제하고 결혼기간만이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 2차로

〈표 8〉 결혼형태의 적합도 산출표

의사소통 유형과 성, 결혼형태간에 상관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Likelihood chi square=27.266 df=15 P=0.027 pearson chi square=25.473 df=15 P=0.044
의사소통유형과 성을 통제한후 결혼형태만이 상관성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Likelihood chi square=19.804 df=9 P=0.019 pearson chi square=19.319 df=9 P=0.023
차 이 검 증	L^2=7.462 df=9 P〉0.05

〈표 9〉 결혼기간의 적합도 산출표

의사소통 유형과 성, 결혼기간 간에 상관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Likelihood chi square=46.990 df=27 P=0.010 pearson chi square=46.949 df=27 P=0.010
의사소통 유형과 성을 통제한후 결혼기간만이 상관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Likelihood chi square=23.371 df=15 P=0.077 pearson chi square=22.765 df=15 P=0.089
차 이 검 증	L^2=23.619 df=12 P〈0.05

적합도를 산출해 본 결과 L^2=23.371로 23.619나 개선되었다. 이러한 개선이 자유도의 변화(df=27에서 15로)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적합도가 유의한 것에서 기인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양자간 차이검증결과를 살펴보았더니 L^2=23.619, df=12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 유형과 결혼기간 사이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 변인별 상관의 정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은 성(sex), 자아존중도, 학력, 결혼기간 등과는 유의적인 상관성이 있고 연령, 가족형태, 종교, 결혼형태 등과는 유의적인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유의적 상관성이 있는 각 독립변인들은 의사소통 유형과 어느정도 상관성이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보았다.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sex)은 권위형에서, 다른형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남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여자는 부적(-)인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자아존중도의 경우 자존도가 하위 ¼집단을 권위형(0.555) 및 친숙형(-0.687)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방향은, 권위형은 정(+)적이고 친숙형은 부(-)적이며, 하위 ¼집단은 친숙형이 상관계수 0.558로 가장 크고 방향은 정(+)적이며 권위형도 친숙형보다는 작지만 상관계수가 -0.462로 비교적 큰 편이고 방향은 부적이다. 그러나 중위 ½집단은 하위 ¼집단보다 상위 ¼집단에 비해 모든 의사소통 유형에 있어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학력의 경우는 중졸이하는 친숙형(-0.671)에서 상관계수가 가장 크고 방향은 부(-)적이며 그 다음이 성실형으로 상관계수가 0.373이다. 대졸이상은 친숙형에서 0.396으로 상관계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고졸의 경우는 다른 학력에 비해

〈표 10〉 상관계수 산출표

변인 / 변인별 의사소통유형	성(sex)		자아존중도			학 력		
	남	여	G1(하 1/4)	G2(중 1/2)	G3(상 1/4	중 졸 이 하	고 졸	대졸이상
권 위 명	0.233	-0.233	0.555	-0.093	-0.462	0.104	0.149	-0.253
친 숙 형	-0.092	0.092	-0.682	0.129	0.558	-0.671	0.275	0.396
성 실 형	-0.062	0.062	0.088	0.132	0.044	0.373	-0.135	-0.238
분 석 형	-0.079	0.079	0.044	0.096	-0.140	0.194	-0.289	0.095

표 10〉 연결

	결 혼 기 간				
	5년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이상
권 위 형	-0.265	0.312	-0.031	-0.208	0.192
친 숙 형	0.405	-0.153	-0.272	-0.194	0.214
성 실 형	-0.067	-0.269	0.592	0.070	-0.326
분 석 형	-0.073	0.110	-0.289	0.332	-0.080

상관계수가 낮은 편이다.

결혼기간과 의사소통 유형간 상관계수를 보면, 5년이하 집단은 친숙형(0.405), 5~10년 집단은 권위형(0.312), 10~15년 집단은 성실형(0.592), 15~20년 집단은 분석형(0.332), 20년이상 집단은 성실형(-0.326)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는데 20년 이상의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2. 연구문제 II의 분석결과

독립변인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은 성, 연령, 자존도, 학력, 결혼형태, 결혼기간, 가족형태, 종교 등이었으나 여기서는 등간 혹은 서열척도인 자존감, 학력, 연령, 결혼기간만을 사용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정준 판별함수 분석표에 따르면 함수1과 2는 정준상관계수가 0.238, 0.178로 $p<0.05$ 수준에서 유의하나 함수3은 유의성이 없다. 또한 변량의 설명력은 함수1에 의해 62.87%가 설명되고 함수2에 의해서는 34.17%가 설명되고 있어 함수1과 2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2〉의 표준화 판별함수계수에 따르면 함수1은 자존도와 연령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연령보다 자존도가 의사소통의 유형을 판별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함수2는 결혼기간과 교육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고 판별력은 교육수준이 결혼기간보다 높다.

또한, 각 집단의 중심치를 보면 함수1에 의해서는 권위형과 친숙형이 비교적 판별이 잘 되는데 비해 성실형, 분석형은 주로 함수2에 의해 판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존도, 연령, 결혼기간, 교육수준을 가지고 부부간 의사소통유형을 얼마나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 〈표 14〉에 나타난 바와같이 이들 4개 변인들로는 전체사례중 32.2%만을 예측할 수 있어 비교적 낮은 예측도를 나타내었다.

〈표 11〉 정준 판별함수표

1	아이겐치	변량 %	% 누계	정준상관 계 수	자 유 도	유 의 도
1*	0.060	62.87	62.87	0.238	12	0.0004(S)
2*	0.033	34.17	97.04	0.178	6	0.0375(S)
3	0.003	2.96	100.00	0.053	2	0.5828(NS)

〈표 12〉 표준화 판별함수 계수

	함 수 1	함 수 2
자존도	0.880	-0.451
연 령	-0.490	-1.545
결혼기간	0.255	1.688
교육수준	0.173	0.970

〈표 13〉 집 단 중 심 치

	함 수 1	함 수 2
권 위 형	-0.419	0.065
친 숙 형	0.383	0.090
성 실 형	0.019	-0.300
분 석 형	0.002	0.133

〈표 14〉 집단 판별 예측 정확도

실 제 그 룹	사 례 수	예 언 그 룹			
		권위형	친숙형	성실형	분석형
권 위 형	71	46.5%(33)			
친 숙 형	72		47.2%(34)		
성 실 형	101			26.7%(27)	
분 석 형	144				21.5%(31)
비분류된사례수	50				

정확히 분류된 사례수의 %=32.22%

V. 要約 및 結論

자아존중감·性·연령·가족형태·종교·결혼형태·결혼기간·학력이라는 8개의 독립변인중 부부간 의사소통유형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변인은 性·자아존중도·학력·결혼기간이라는 4개의 변인이었으며, 유의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각 변인들의 상관정도는;

1) 性(sex)은 다른 유형보다 권위형(0.233)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관의 방향은 남자는 정(+)적인데 반하여 여자는 부(-)적이며,

2) 자아존중도는 자존도가 낮은 집단은 권위형(0.555) 및 친숙형(-0.687)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방향이 권위형은 정(+)적이고 친숙형은 부(-)적이며, 높은 집단은 친숙형(0.558)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간집단은 모든 의사소통유형과 낮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3) 한편, 학력은 대졸이상에서 친숙형과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고(0.396) 고졸은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중졸이하는 성실형이 높은 편이고(0.373),

4) 결혼기간은, 5년미만 집단은 친숙형(0.405), 5~10년 집단은 권위형(0.312), 10~15년 집단은 성실형(0.592), 15~20년 집단은 분석형(0.332), 20년 이상 집단은 성실형(-0.326)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자존도·연령·결혼기간·교육정도라는 4개의 변인으로 판별할 수 있는 부부간 의사소통유형의 판별능력은 예측력이 32.2%로 비교적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제분석결과들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의 가족제도에서는 부부가 애정을 바탕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하여 부부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 가정관리방식이 가장 바람직하고, 부부관계는 일방적 관계보다 쌍방적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성별로는 남자, 자아존중도로는 낮은 집단에서 권위주의형과 높은 상관도가 발견되고 있으며

둘째,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성(sex)·자아존중도·학력·결혼기간 등이며, 연령·가족형태·종교·결혼형태 등은 유의적인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에서 볼수 있듯이 부부간 의사소통유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내적 품성개선과 성차별의 인식개선 및 학력의 재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부부간 의사소통과 제변인들간의 상관성은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동일한 변인이라 하더라도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라 그 상관의 정도와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지역이 대도시인 서울에만 제한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 시키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 표집의 대표성면에 있어서 편포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즉 성별은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으나 기타 독립변인인 학력·결혼기간·연령·종교·가족형태에 있어서 균등하게 표집되어 있지 못하다.

【참고문헌】

1) 권정임, "부부간의 대화를 통한 결혼생활의 만족도", 영남대 석사논문, 1981.
2) 김선옥, "특성불안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1.
3) 김영희,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논문, 1980.
4) 김정옥, 「남편 우월감이 아내 구타 부른다」, 동아일보 1988년 7월 23일자, 1988.
5) 김정현, "부부치료에 있어서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적 접근",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6.
6) 김종희, "지기노출과 자아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일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0.
7) 박민숙,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5.
8) 박지영, "대화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6.
9) 배제현, "자아, 아이덴티티와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계명대 석사논문, 1984.
10) 손봉호, "Husserl의 현상학에 있어 태도의 문제", 철학 제2집, 1978.
11) 송말희,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86.
12) 송성자, "한국 가족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숭전대 박사논문, 1985.
13) 원효종, "부부간의 의사소통 양식과 의사소통 불안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3.
14) 이창숙, "한국 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6권 1호, 1988.
15) 이욱종, "텔레비젼 수용에 대한 가족성원간의 상호간격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논문, 1986.
17) 임양재, 〈일반생태학〉, 이우출판사, 1979.
18) 장성숙,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소집단 훈련의 효과", 고려대 석사논문, 1980.
19) 정용제,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상관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1985.
20) 조성욱, "결혼만족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5권 1호, 1987.
21) 조은경, "기능적인 가족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1호, 1984.
22) 조은경, "가족의 커뮤니케이션과 권력에 관한 기능적 이론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5권 2호, 1987.
23) 조혜정, "부부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1983.

24) 홍기선, 〈커뮤니케이션론〉, 나남출판사, 1985.
25) Bavelas A., "A Mathmatical Model for Group Structure", Applied Anthropology, Vol. 7, 1948.
26) Schutz A., "Phenomenology and the Social Science", 한국현상학회편, Selected Essays on Phenomenology, 서광사, 1979.
27) Collins B.E. & Raven B.H., "Group Structur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4, Massachusetle: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1965.
28) Paolucci, B. Hall Q. & Axinn N., "Family Decision Making", An Ecosystem Approach, N. Y.: John Wiley & Sons, 1977.
29) Haukins J.A., Weisberg C. & Ray D.W., "Spouses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Per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38, 1980.
30) Haukins J.A., Weigberg C. & Ray D.W., "Marital Communication &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38, 1977.
31) Husserl G. Gadamer, "Truth and Method", N.Y.: Crossroad, 1982.
32) James Bossare, "The Law of Family Inter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January, 1945.
33) Kathleen M. Galvin & Bernard J. Brommel, "Family Communication(cohention & change)", Scott, Foresman & Company, 1986.
34) Earris N.G., "A System Approach for family Crisis Study", East Laving: Unpublished Michigan State University, 1970.
35) Andreson Ralph E. & Irl E. Carter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장인협외 4인 공역, 집문당, 1983.
36) Richard H. Klemer, Rebecca M. Smith, "Klemer's Marriage & Family Relationships", Harper & Row Publishers, 1975.
37) V. Satir, "Peoplemaking", California, Science of Behavior Books, 1972.
38) Wilbur Schramn, "Nature of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The Process & Effect of Mass Communi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1965.

〈부 록〉

A. 자존도 측정 Scale

	1 매우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지 않은편이다	4 보통이다	5 그런편이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2. 나는 나 자신을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다.							
3.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4. 나는 다른 사람 만큼 일을 해낼 수가 있다.							
5.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것 같다.							
6. 나는 가끔씩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7.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보다 더 자신감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9. 나는 항상 실패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B. 부부간 의사소통유형 측정 문항

1.

* 내 자신이 피곤할 때는 배우자의 이야기를 못들은 척 한다.
* 나의 고집을 강하게 내세워 이야기하는 편이다.
* 항상 내 기분대로 급히 이야기해 버리는 편이다.
* 배우자에게 대체로 충고하는 이야기를 잘 한다.
* 배우자와 이야기도중 의견차이가 생겼을 때는 그냥 말을 뚝 끊어버린다.

2.

* 항상 다정하게 이야기한다.
* 잦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많이 이해하도록 한다.
* 대부분 배우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먼저 들어준다.
* 배우자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이야기한다.
* 항상 명랑하고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3.

* 진실하게 이야기한다.
*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 감추는 것 없이 모든 것에 대해 상의한다.
* 배우자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인다.
* 대부분 이야기 내용을 배우자에게 열심히 진지하게 이야기한다.

4.

* 내 자신의 입장에서 의견을 솔직 정확하게 표현한다.
*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면서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법제시를 한다.
* 어떤 일을 배우자와 이야기할때 그 일에 대해 정확히 알려고 질문한다.
* 어떤 이야기든지 대충 넘기려 하지 않는다.
* 일단 배우자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는 자유스럽게 이야기한다.